

# 전남해역 인공어초 44년간 29만개 ... 효과는 논란

## 도 "어장조성 효과 좋아 당분간 계속 추진"

### 일부선 "콘크리트 어초 갯녹음 원인" 지적

전남도 해역 곳곳에 무려 29만개가 넘는 인공어초가 투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장 조성을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시작된 인공어초사업이 올해로 4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전남도는 어장 조성 효과가 탁월하고, 아직 '적지'도 남아 있어 당분간 계속 인공어초를 계속 투하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콘크리트 인공어초가 오히려 수중 생육 환경을 악화하고 녹화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돼 소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71년부터 여수·목포·고흥·무안·완도·진도·신안·장흥·강진 등 739곳의 해역 4만4738ha에 1949억원을 들여 29만1000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했다. 올해도 400ha에 56억2500만원을 투입, 2429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하기로 했다. 이는 1971년 당시 계획한 9만3819ha(2905억원)의 47% 수준이다.

인공어초는 크게 어류형과 패조류형으로 구분되며, 올해부터는 기존 1개 단지의

면적을 16ha와 4ha의 절반인 8ha와 2ha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갯벌이 넓게 분포돼 있어 큰 면적의 '적지'를 찾지 못했던 전남도는 한층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공어초는 사각형, 방갈로형 등 형태에 따라, 콘크리트, 강판 등 소재에 따라 모두 75개 종류로 나뉘는데, 대상지의 특성을 감안해 종류가 결정된다.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어초의 경우 레미콘 경화제 독성으로 인해 갯녹음(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 일부나 전부가 고사, 유실되는 등 정착성 생물이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매년 동부·남부·남서·서부

등의 해역별로 순차적으로 인공어초를 조성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인공어초시설해역에 대한 어장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들 해역의 어획량을 조사한 결과 최소 1.1배에서 최대 4.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공어초가 장기간 많이 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사업 효과가 커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설치해역은 수심, 상태 등을 조사해 보수·보강하고, 패어망 등 집전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관람객 80% "담양대나무박람회 성공적"

### "죽녹원 가장 만족 콘텐츠"

### 송태갑 광주전남연구원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열린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관람객의 대다수가 박람회에 만족했으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비싼 입장료와 음식·음료 가격에 대해서는 아쉬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관람객 대부분이 '당일치기'로 박람회장을 찾았으며, 이에 따라 여행 경비 10만원 미만인 관람객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체류형 관광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지 791부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2.4%가 '긍정적'으로 만족도에 대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박람회의 성공여부에 관한 질문에도 79.1%가 '성공적'이라고 답했다. 가장 만족한 박람회 콘텐츠는 '죽녹원(26.9%)'이었으며 '메타프르방스(20.9%)', '주제전시관(16.5%)', '메타세콰이어가로수길(16.5%)'순으로 조사됐다.

아쉬운 점으로는 '음식점, 카페 등의 비싼 가격(30.5%)'과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미흡(16.5%)' 등을 선택했으며, 박람회 입장요금에 대해서도 '비싸다'는 응답이 65.7%에 달했다.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76.5%가 '당일코스'라고 응답해 체류관광으로 연계되지 못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람객의 여행비용은 가장 많은 응답자가 '6~9만원(38.4%)'이었고, 다음으로 '10~29만원(20.6%)', '5만원 이하(15.0%)' 등의 순으로, 대부분 30만원을 넘지 않았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 민간투자 추가 유치

### 내달 24일까지 5차 공모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민간투자 추가유치를 위한 제5차 공모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공동 추진하는 이번 공모에서 해양레포츠시설과 리조트 조성용으로 투자유치가 성사된 해양레저구역의 엘(L)부지를 제외한 부지 22만2000㎡,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스카이다워·국제관·주제관 등이 임대 또는 매각 대상이다.

임대·매각 방식은 투자자 기호에 따른 구역별·필지별 분할 매각, 최장 10년의 장기임대와 매입 대금에 대한 5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투자 관심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임대문의가 많은 국제관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때 고정 임대료 80%에 흥행수익에 따른 성과금(리빙개런티) 5%를 추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총별 임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9월 4차 공모에서 사업 후보자로 1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홈페이지(http://www.expo2012.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제안서는 여수박람회 재단 경영기획부로 제출하면 된다.

유현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지난 9월 1개 기업 투자유치를 계기로 여수박람회장에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성폭력 없는 사회 만들시다"

광주여성민우회 회원들이 25일 총장로 앞 서점 앞에서 성폭력추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주지법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 처분 부당"

### 의원직 상실 광주·전남 지방의원 6명 거취 주목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퇴직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당시 의원직을 상실한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형 부장판사)는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

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전북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통진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 전 의원이 곧바로 복직하는 건 아니며 변호사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서도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

표 지방의원들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오미화 전남도의원 등 광주·전남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 3·기초 3)이 지난 10월 26일부터 의정활동 재개 및 등원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거위원회의 퇴직 통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며, 올해 초 시·도 선관위원회와 시·도의회의장 등을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법(제1행정부)에 제기하기도 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위원회 27개 회의 한번도 안해"

### 박철홍 전남도의원 지적

전남도 소관 위원회 123개 위원회 중 1년간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27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홍(당양1) 전남도의원은 24일 자치행정국 행정감사에서 전남도 소관 위원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23개 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이 연간 3억80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단 한 번만 개최한 위원회는 34개, 두 번 개최한 위원회는 21개 등 절반 이상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답변에 나선 정순주 자치행정국장은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법령에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근거 때문에 많은 위원회가 양산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검토해서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이정현 전주대 교수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입 원장에 이정현 전주대 교수가 선임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진흥원 이사회는 이날 제6대 원장에 이 교수를 임명했다.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 중 2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이사회는 이 교수를 차기 원장으로 선정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에 앞선 공모에서는 9명이 지원해 4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지만 진흥원 측은 적격자가 없다고 보고 재공모하기로 해 일부 지원자가 반발하기도 했다. 진흥원은 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3차원 입체영상 변환 한미 합작 투자 사업인 이른바 '캠코 사업'에 출자해 손실을 낳는 등 조직쇄신 필요성이 제기됐던 시 출연기관이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수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 소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백운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수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